

7월 전북 미분양 주택물량 증가세

최근 2~3년간 아파트 분양 크게 늘어나... 군산시가 1,512가구로 최다

7월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29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2~3년간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114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경기 1만 7,243가구 △경남(9,737가구) △충남(8,647가구) △경북(6,198가구) △충북(4,428가구) △인천(3,724가구) △강원(3,061가구)의 뒤를 이었다.

전북 미분양 물량은 대도시 대비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512가구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미분양 위험에 따른 주택공급량 관리를 위해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민약 이틀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사실상 미분양 관리지역에 아파트 신규 공급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막겠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에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난다. 이들 지역에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은 올해 아파트 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실제 평균 이상의 새 아파트가 과다 공급된 몇몇 지역들은 올해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한양수자인 아파트 주택 홍보관이 30일 남부시장내 코오롱 상가 2층에서 문을 연다.

전주다가동 한양수자인 주택홍보관 오픈

358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한양수자인 아파트 주택 홍보관이 30일 남부시장내 코오롱 상가 2층에서 문을 연다.

전주시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전용면적 85㎡ A타입 140세대, 85㎡ B타입 18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50세대 총 3타입에 358가구로 지어지며 지하 3층, 지상 29층 3개동의 중 소형 단지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주택홍보관과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전북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중형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전주시 다가동 2가 116-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다가공원과 전주천, 영화의 거리, 남부시장, 한옥마을과 5분 거리에 인접해있다.

직접 토지를 매입해 건축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특성상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급가가 약 10~20%가량 저렴하며 전 가구 대부분이 남향 위주의 4bay 설계로 지어진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00-7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건물의 노후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거노인 등이 학업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백학야간학교가 새단장을 한다

완산구 백학야간학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제3호점 착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현)는 29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백학야간학교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제3호점을 착공했다.

전주시 완산구 소재 백학야간학교'는 건물의 노후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거노인 등이 학업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노년층들의 배움터인 야간학교이다.

이광현 회장은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도내 전문건설인들의 마음을 모아 시작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역사회 사랑 나눔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도내 농업용 로봇기업들, 전국 FFK 전진대회 참가

전북지역 농업용 로봇기업들이 우수성을 맘껏 뽐냈다. (재)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로봇기업들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주생명과학관에서 열리는 전국 FFK 전진대회에 참가했다.

로보닉스 (주)한호기술, (유)이젠 365가 참가했고, 국내 농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및 영농학생,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로봇의 농업 적용 분야 농업과 ICT 연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전국 FFK 전진대회 참가를 시발점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국 FFK에 전라북도 농업용 로봇의 전시·홍보를 통해 미래 스마트 농업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FFK(Future Farmers of Korea)전진대회는 전라북도교육청, FFK연합회, 한국농업교육협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신광영 기자

내달 2일까지 남부시장에서

'800년의 소리, 전주남부시장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막이 올랐다.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남부시장 최대 규모의 쇼핑과 한류스타 공연 및 다채로운 쇼핑관광축제이다.

참제 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동시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남부시장 상가는 60여 점포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보기 힘든 60~20% 우수상품 할인판매와 청년상인들의 체험가게 이벤트를 제공한다.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선물도 마련된다. 남부시장 선물 꾸러미, 대형냉장고, 세탁기 등 모 가능한 경품이벤트가 열린다.

볼거리를 위한 행사도 꾸며진다.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남부시장 천변에서 요일별 다채로운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특히 30일부터 오후 6시 30분부터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아이돌스타 토티의 베이식 브로맨스, CLC 등이 출연하는 특별 공개방송이 예정돼 있다.

또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야시장은 행사를 맞이해 오후 10시~11시 타임세일 이벤트가 진행되고, 기존 영업일인 금·토요일보다 연장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10월 1~2일에는 '기차타고 1박2일 전주 테마여행'에 참여한 1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 및 전주세계소류축제 참여 아티스트들이 남부시장을 방문해 전주와 글로벌명품 남부시장의 매력을 즐길 예정이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800년 간 우리 남부시장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힘은 도민 덕분이다"며 "그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 꼭 들려주세요"를 건넸다.

전주시 상인회 관계자는 "800년 간 우리 남부시장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힘은 도민 덕분이다"며 "그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 꼭 들려주세요"를 건넸다.

/신광영 기자

전주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시작

도로공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김제시 일대 탐방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병국)는 29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 김제시평산축제 및 김제시 일대를 탐방하는 'EX행복원정대' 3차 원정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로공 전북본부 봉사단 및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위단을 통해 추천받은 삼천나눔·소망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체험을 위해 도로공 측은 행사바스 제공 및 식사 등 부대경비 전반을 김제시 측은 체험코스 추천 및 축제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3차에 걸친 행복원정대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익활동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홈쇼핑 높은 판매수수로 낮춰야'

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홈쇼핑의 판매수수료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31%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MS 홈쇼핑보다 조금 높지만 태백비 등을 제외하면 MS, GS 홈쇼핑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GS 홈쇼핑의 경우 대기업 판매수수료가 34%지만 홈쇼핑은 대기업에 27.9%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31.6%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홈쇼핑의 방송 편성도 중소기업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역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편성이 80.4%로 이뤄지고 있지만 수입제품은 4%에서 지난해 7.2%로 올랐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수입제품에 대한 비중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간에 대기업 수입제품을 많이 편성했다"며 "홈쇼핑은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홈쇼핑이 공정위로부터 ▲납품사업자에게 방송계약서 교부 미이행 ▲판매촉진비용 50% 이상을 납품업자에 부담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유통센터가 홈쇼핑에 대한 경영참여를 못하다보니가 상업용 홈쇼핑과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수위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각을 세웠다.

/뉴스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구현

정읍시의회

www.jcc.or.kr